

V

바이브 메이커 · 무료 가이드

클로드코드가 뭔가요?

코드 한 줄 몰라도, 내 아이디어를
진짜 서비스로 만드는 AI 파트너

기초 · 커맨드 · 스킴 · 하네스 · MCP 까지
10분이면 감이 옵니다.

챗봇이 아니라, 내 옆에서 **직접** 일하는 AI

챗지피티 같은 챗봇은 대화하고 답을 줍니다 — 그걸 복사해 붙여넣는 건 내 몫이죠. **클로드 코드는 다릅니다.** 내 컴퓨터의 폴더(프로젝트)를 통째로 열어보고, 계획을 세우고, 파일을 직접 만들고 고칩니다.



읽는다

내 프로젝트 파일을 통째로 이해



계획한다

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스스로 설계



해낸다

파일을 실제로 만들고 고쳐서 완성

💡 그래서 한마디로

'대화하는 AI'가 아니라 '**일하는 AI 파트너**'입니다. 한국어로 "이렇게 만들어줘" 하면, 클로드 코드가 진짜 파일을 만듭니다. 코드를 몰라도 됩니다.

비개발자가, 진짜 되는 걸 만듭니다

'예제'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결과물입니다. 말로 시키면, 눈에 보이는 게 나옵니다.



랜딩페이지

한 문장이면 홍보 웹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뜹니다.



발표자료(PPT)

"PPT 만들어줘" 한마디에 슬라이드가 완성됩니다.



배포된 웹서비스

인터넷 주소가 나오는 진짜 서비스까지 만듭니다.



사진 보고 제작

화면 캡처를 주면 그대로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.

반나절 → 30분

현직 개발자가 "반나절 걸릴 수정 10건"을 한 번에 처리한 실제 사례. 혼자서 팀만큼의 일을 해냅니다.

🎯 달라지는 것

이제 고민은 "내가 만들 수 있을까"가 아니라 "뭘 만들까"로 바뀝니다.

코딩이 아니라 '명확한 요청'입니다

좋은 결과는 좋은 기획서에서 나옵니다. '왜·누가·무엇을·언제·어디서·어떻게' 한 문단만 정리해도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. 문법이 아니라, 원하는 걸 또렷하게 말하는 힘이죠.

비개발자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— 미리 안심하세요

- 1 결과가 매번 조금씩 달라요**
정상입니다. 생성형 AI의 특성이예요. "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줘"로 다듬으면 됩니다.
- 2 에러가 나면 어떡하죠?**
그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으세요. 클로드코드가 읽고 스스로 고칩니다.
- 3 한참 멈춰 있어요**
기다림도 정상입니다. 몇 분씩 걸리는 작업이 있어요 — 커피 한 잔 하고 오면 됩니다.

커맨드 — 나만의 '단축 지시어'

매번 길게 설명하는 대신, 자주 하는 일을 **단어 하나로** 부릅니다. 폴더에 짧은 메모(마크다운) 하나 = 나만의 명령어가 됩니다.

예 — "배포" 한 단어를 치면



💡 핵심

한 번만 정의해 두면, 그다음부터는 **단어 하나로 여러 단계가** 끝납니다. 손이 기억하는 자동화의 첫걸음이에요.

이렇게 생겼어요 — 폴더 속 메모 한 장

`.claude / commands / 배포.md`

"테스트하고, 저장하고, 배포한 뒤
결과를 한국어로 알려줘"

스킬 — AI에게 주는 '업무 매뉴얼'

신입사원에게 매번 말로 시키면 힘들고 품질도 들쭉날쭉하죠. 매뉴얼을 한 번 써두면 누가 해도 같은 품질. 스킬은 클로드코드에게 주는 그 매뉴얼입니다.

스킬이 가벼운 이유 — 2단계 로딩

평소엔 '제목 + 한 줄 설명'만 들고 있다가, 필요할 때만 전체 내용을 펼칩니다. 그래서 스킬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굼떠지지 않아요.

커맨드

내가 직접 부르는 단축키.
"이거 실행해줘" 하면 발동.

스킬

상황이 되면 알아서 발동하는 매뉴얼.
한 번 써두면 계속 재사용.

예 — 이런 걸 '스킬'로 만들어 둡니다



발표자료 만들기



보고서 작성



이미지 생성

하네스 — 스킬·커맨드를 엮은 '자동화 공장'

스킬과 커맨드를 여러 개 이어붙이면, 한 번의 요청으로 여러 단계가 스스로 굴러가는 **작업 라인**이 됩니다. 이것을 '하네스'라고 불러요.

워크플로우 전체 흐름을 먼저 '사람 말'로 설계합니다.

에이전트 중간에 막히면 스스로 고쳐가며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.

작은 도구들 거대한 한 덩어리보다, 작은 조각 여러 개가 훨씬 안정적입니다.

💡 안정성의 비밀

핵심은 '**AI의 판단**'과 '**실제 실행**'을 분리하는 것. 그래야 매번 흔들리지 않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

커맨드

+

스킬

+

스킬

→

하네스

← 다음 장 — 실제 사주 서비스가 이 원리로 '영상 공장'이 됩니다.

사주 서비스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'스킬'로 만들었습니다

실제 운영 중인 사주 서비스.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**전부**가 스킬로 짜여 있어, 한 줄 아이디어만 넣으면 발행까지 자동으로 흘러갑니다.

- 한 줄 아이디어 입력
- 대본 작성 → 화면 구성 → 목소리(TTS) 생성 전부 자동
- 🖐️ **검수** — 사람은 여기 딱 한 번 "이거 괜찮아?"
- 영상 렌더 → 캡션 작성 → 5개 SNS 발행 전부 자동

📄 워크플로우 = 마크다운 몇 개

누구나 읽을 수 있는 '레시피'. 코드가 아니라 사람 말로 적힌 순서입니다.

🏭 자면서 도는 공장

스케줄러까지 붙이면, 매일 알아서 영상이 만들어져 올라갑니다.

🎯 그래서

한 사람이 하던 콘텐츠 팀 전체의 일을, 잘 설계된 스킬 하나가 대신합니다.

MCP — AI에게 '특별한 부품'을 끼우다

레고 기본 세트만으론 만들 수 있는 게 한정되죠. 특별한 부품을 더하면 더 복잡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. MCP는 AI에게 새 도구를 끼워주는 표준 연결이에요.

API

요리 하나를 주문하는 웨이터.
한 가지 서비스를 빌려 씁니다.

MCP

여러 주방·도구를 한 번에 연결.
AI가 바로 꺼내 쓰는 도구 상자.

예 — 이런 도구들을 끼웁니다



데이터베이스
정보 저장·조회



방문 분석
누가 왔는지



브라우저
웹 자동 조작

💡 한 줄 정리

도구를 늘리면,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납니다.

여기서 어디로?

머리로 이해했다면, 이제 손으로.

따라 해보면 진짜 실력이 됩니다.

2주 부트캠프에서 이 전부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— 내 서비스 하나를 배포까지.



나만의 서비스, 기획 → 제작 → 배포까지



스킬·커맨드로 나만의 자동화 만들기



10명 정원 · 1:5 밀착 케어 (강사 2명)

2주 부트캠프 신청 → vibemake.kr